

서평: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당윤희 *

한국경학학회에서 매달 진행하는 강독회의 읽을거리로 벤자민 엘먼(Benjamin A. Elman) 교수의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원제: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Intellectual and Social Aspects of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양희웅 옮김. 예문서원 2004)라는 책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빠르게 찾아보면서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지, 이 책에 대한 인상이 깊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 동인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들여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진득하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해 보니,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나 관점으로 부터 얻게 된 깨달음과 그로부터 새롭게 채워지는 생각의 퍼즐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매달 이어진 강독회의 정리도 할 겸, 이 책을 읽고 난 소회를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한국경학학회의 회장이신 이강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라는 책이 매달 진행하는 강독회의 읽을거리로 선정된 후, 2022년 4월 30일에 이시연 박사생과 박선영 박사생이 각각 서문과 1장 “전근대 후기의 담론 혁명”의 발제를 해준 것을 시작으로 5월에 최다정

*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박사생과 이시연 박사생이 각각 2장 “도심과 인심 논쟁”과 3장 “고증학과 공유된 인식론적 관점의 형성”을 발제하면서 이 책에 대한 강독이 이어졌다. 6월에 이아영 박사생과 당윤희가 각각 4장 “강남 학자들의 전문직업화”와 5장 “학술, 도서관, 서적 출판”을 발제했으며, 7월 23일에 변은미 박사생과 노경희 선생님이 각각 6장 “강남 학술공동체의 교류 채널”과 7장 “대단원”을 발제하면서 강독을 마무리 지었으니 근 4개월에 걸쳐 읽어나간 셈이다. 한국 한문학과 한국 경학, 철학 전공자이거나 중국 경학이나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함께 책을 강독했고, 어느새 익숙해진 온라인 강독회는 중국의 송대와 명대, 청대에 거쳐 성리학이 흥성했다가 다시 고증학이 태동되고 발전하게 된 사회 문화적 동인에 대해 설명한 벤자민 엘먼 교수의 견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이 책의 작자인 벤자민 엘먼(Benjamin A. Elman) 교수는 1946년 독일 뮌헨의 유대인 난민수용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68년 미국 해밀턴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평화봉사단에서 일하면서 버마와 태국 변경에서 말라리아 등 질병 예방 프로젝트에 종사했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태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벤자민 엘먼 교수는 1973년에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지역 연구 박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1973-74년에 대만 타이페이 인터 유니버시티 센터에서 공부하고 1977-78년에는 일본 도쿄의 인터 유니버시티 센터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일본어를 연수하던 시절, 일본의 청대 고증학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7-18세기 중국 사상사를 연구하는 일본의 학술 연구 성과를 소개받았다고 하였다. 엘먼 교수는 이때 자신의 연구주제였던 금문경학에 대한

관심이 고증학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그의 박사논문 주제가 17-18세기 고증학의 발전 내에서 금문학이 차지했던 위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술하였다. 저자는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간 대학교 중국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UCLA 역사학과 교수를 거쳐 2002년도부터 프린스턴대학 동아시아학과 및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벤자민 엘먼 교수는 영어, 중국어 및 한문, 일어, 불어, 독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하여, 중국사상사, 사회사, 문화사, 교육사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으며 연구의 범위를 중국과학사와 일본 사상사 분야로까지 넓혀가며 폭넓은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강독회에서 읽었던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이외에 “고전주의, 정치, 종족: 청대 상주(常州) 금문학과(今文學派) 연구”(1990)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전근대 후기 중국의 신사(紳士) 사회가 학생들의 경전 교육을 위해 가족과 종족 중심으로 조직적인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상주에 살던 종족 조직체는 지역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권위를 지니면서 정치적 영향력과 학문적 명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짚어내었다. 이로부터 엘먼 교수의 연구가 정치, 사회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학술의 발전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론을 취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엘먼 교수는 이후로 “청대의 교육과 사회”(1994)를 공동으로 저술하고 “중국 과거제도의 문화사”(2000) 등을 연구하면서 제도와 교육, 정치, 문화가 결합된 중국 전근대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강독회를 진행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문제 중에 “From Philosophy to Philology”라는 영문 제목의 해석에 대해 논의된 바 있었다. 이 제목은 직역을 한다면 “철학으로부터 문헌학으로”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책의 서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영문 번역의 문제에서부

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엘먼 교수는 서문에서 이 독특한 제목의 진짜 의미는 중국 고전시기의 학술이 “송명 성리학에서 청대 고증학으로” 변화해갔던 역사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고 역자는 그 견해를 존중하여 그대로 따르면서 영문 제목의 본래 의미와 서구적 분류는 잠시 내버려 두었다. 일본과 중국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강독회에서도 엘먼 교수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책 제목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성리학이 철학적 사유를 중시하고 고증학이 문헌학의 방법론을 핵심으로 여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영문 제목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의 제목을 통해 성리학과 고증학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한 번 더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하는 엘먼 교수의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고증학의 태동과 발전의 기제에 대한 엘먼 교수의 분석이 기존의 중국학자의 연구에서 종종 언급되었던 바, - 성리학이 쇠퇴하고 고증학이 주류 학풍으로 자리 잡은 것은 청나라 조정의 문자옥(文字獄)과 같은 정치적 탄압과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송학(宋學)의 공소(空疎)한 문풍에 대한 반발 등이 원인이 되었다는 - 고증학의 변화와 발전을 청대 정치 사회의 변화에 종속시키는,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해석과 달랐던 것이다. 엘먼 교수는 고증학을 발전시킨 청대 학자들이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경제력을 갖추고 오랜 시간 연마된 학술 전통을 지닌 ‘학술공동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학술공동체’가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 결속되어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한편, 훌륭한 교육을 통해 과거에 급제한 많은 자제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다시 정치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력을 확장하는 선순환을 보이는 궤도를 파악하여 학술공동체의 지역 사회적 특성, 경제 문화

적 특성, 공동체의 구조와 구성원의 특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고증학의 발전이 청대 통치자들의 정치적 억압과 학술 정책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학자들의 일정한 경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소극적인 해석과는 결이 다르며, 오히려 당시 중국 강남의 풍요로운 경제적 뒷받침 속에서 양성된 동향(同鄉)의 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고대 언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고대 경전의 정확한 의미와 재구성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학술 사상이 꽃피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학술의 진전과 발전이 일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기에 사회의 경제 제도라는 변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또 다른 종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은 17-18세기 강남 장서루(藏書樓)의 발전과 출판 사업의 번영이 그대로 청대 고증학 및 학술의 발전의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였다. 장서루는 수집된 수많은 책으로부터 지식의 집적과 교착, 원류의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고증학의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전통 시기에 간행된 전통 시대 중국의 총서들은 근대의 정기간행물처럼 어떤 것을 기록으로 남겨 둘 때 사용하는 주요한 매체가 되었고 마치 소규모 도서관과 흡사할 정도로 그 총서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출판되었다. 이 총서들의 존재는 현대와 같은 체계적인 도서관 시설이 결여된 시대에 현대의 도서관 목록을 대체할 만한 주제별 참고 목록 역할을 하였고, 고대의 작품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설명은 총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또한 총서의 형성은 중국의 전근대 시기 지식의 축적과 확산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국적인 특색을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에 18세기의 고증학자들이 편지를 사용하여 현재의 학술 간

행물의 역할을 대신하였다는 사실도 개인의 정감을 숭회하는 문학 양식 이상으로서 존재하였던 당시 편지의 기능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학자들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의 부분(副本)을 남겨놓기도 하고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인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어 편지를 돌려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기도 하는 한편, 심지어 출판하는 간행물로 삼기도 하였다. 젊은 학자들이 정보 교환을 위해 서신 왕래에 의지하였으며, 학술적인 성격의 서신은 훗날 종종 작자의 문집 또는 단독 저작의 형태로 수집되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학자들 간에 지식과 의견이 교환되고 수정되고 학습되는 방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엘먼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중국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발휘하였으니,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라는 책을 통해 성리학자들과 고증학자들의 학술적 경향과 관점뿐만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들을 또렷하게 부각시켜서 그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생활하던 시대의 전반적인 면모를 함께 그려내었다. 그의 책을 통하여 고증학자들의 정신적 지향과 더불어 고증학자들이 지향하던 학술 활동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환경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다. 무엇보다도 송학(宋學)과 한학(漢學)이라는 유학 연구 방법론을 대립 구도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여, 중국의 전근대 시기에 청대 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들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학문 발전의 추세로 나타났다고 해설한 것은 신선한 관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대 고증학은 다만 고대 경전의 문헌 연구에 천착하였던 학술적 경향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연구 방법론은 청대 학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과 과학, 경험, 실증을 중시하는 근대 학문으로의 전환을 예비하는 단계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문자옥에 걸려들까 두려워 자리를 피하고, 책의 저술이란 모두 호구지책이었을 뿐(避席畏聞文字獄, 著書都爲稻粱謀)”이라는 폄하를 받기도 하였으나, 청대 고증학자들은 고대 경전의 정확한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학문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일생을 바쳐 경전 연구에 정진하였다. 우리 강독회가 그 옛날 중국의 성리학자와 고증학자들, 그리고 조선의 사상가들이 읽었던 고대 경전들을 읽고 그들이 그려냈던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지향했던 사상과 철학, 경전 해석의 의미를 바르게 해독하고 보편적인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옛 중국 고증학자들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동아시아의 경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현재적 의미의 학술공동체가 되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그 학술공동체의 궤적을 보여주는 한 발자국이 될 수도 있겠다.

